



5로 보이는 양돈



유성열
(<주>삼양사 축산시험장장)

양돈장에서 일어나는 일중에는 5와 관계되는 일을 찾아 보기로 하자.

앞으로 양돈장 입구에는 다섯 대의 차는 서 있게 될 것이다. 한 대는 주인의 승용차고, 또 사료와 물품을 나르는 소형 화물차와 돼지 운반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돈장 직원차가 한 대, 거기에 방문객의 승용차가 한 대. 앞으로 몇년 이내에 이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해 본다.

양돈장의 주차장 면적은 어떻게 될까. 출입문 밖에서의 출하비육돈 상차와 사료하차, 세차시설을 포함한다면 최소한(5×10)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사의 종류도 5가지로 나누

는 것이 가장 좋다. 성돈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와 격리돈사로 구분할 수 있다. 격리돈사는 새로 구입한 돼지의 사육, 후보돈의 사육을 위하여 별개의 돈사가 필요하다. 나머지 돈사는 같은 건물을 나누어 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같은 공간을 쓰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다섯 종류로 건물이 다섯 개가 되려면 우이 150두는 넘어야 한다. 우이 100두만 넘으면 종류별로 구분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사료도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과 송을 위한 성돈사료와 갓난돼지사료, 젓먹이사료, 육성돈사료, 비육돈사료로 구분하면 돼지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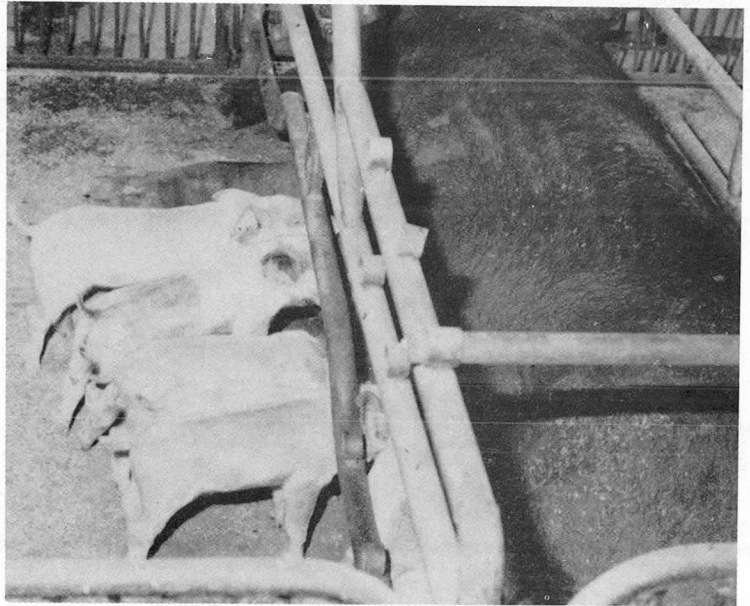
다.

성돈사료는 고가의 고품질 사료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우은 몸 상태와 시기에 맞게 양으로 조절하는 사료급여량 표준을 정해 둔다. 송은 나이, 상태, 교미횟수에 따라 양을 조절해 준다.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에 따라 필요하다면 비육돈후기를 사용해도 좋다.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무포장사료를 쓰려면 우이 최소 80두는 넘어야 한다.

1인당 사육두수는 (5×100)두를 목표로 양돈장의 구조와 시설을 고쳐나간다. 생산원가의 경쟁에서 가장 크게 변동되는 항목은 인건비다.

돈사의 길이는 5×10m는 되도록 건물을 짓자. 돈사가 작으면 작업시 이동하는데 시간이

우의 월간 도태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우후보돈의 준비, 교미작업의 정상화, 번식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4%이하의 도태가 필요하다.



낭비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한 눈에 보이는 면적이 넓은 것이 좋다. 같은 면적이지만 2개동 보다는 한 개의 돈사를 관리하는 것이 작업능률이 더 높다.

1주일에 5일간 큰 일을 하도록 작업계획을 세우면 좋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일은 진행되도록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료주기와 청소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분만도 토요일 오전까지 끝나도록 홀몬제를 사용하면 된다. 앞으로의 근무는 작업량보다는 근무조건이 더 중요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우는 생후 5개월에 성성숙이 되지만, 첫 발정에 임신시키는 양돈장은 없다. 어린돼지에게 새끼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몸이 커져서 새끼를 잘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우의 월간 도태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우후보돈의 준비, 교미작업의 정상화, 번식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4% 이하의 도태가 필요하다.

우의 연간 교체율은 (5×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좋은 종돈을 구입하거나 질병에 의한 피해를 보충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외에는 40%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키우던 돼지와 다른 특징(품종, 혈통 등)을 가진 개체가 많아지면 반드시 번식성적이 낮아진다.

경산돈의 번식은 5개월에 1회전을 목표로 한다. 임신기간 115일, 포유기간 25일, 재귀발

정일 평균을 10일로 보면 150일이 된다. 이때 번식회전율은 연간 2.4회가 된다.

우의 재귀발정징후는 이유후 5일부터 나타나도록 사양관리를 한다. 자체에서 후보돈을 선발한다면 재귀발정일수가 5일이 되는 우에서 생산된 개체부터 뽑는다. 이는 관리방법과 개체의 특성이 잘 맞아서 빨리 발정이 나타난 결과이다. 우의 몸상태(Body Condition)에 따라 사료량 조절이 잘되면 번식주기도 짧아진다. 재귀발정일은 포유기간만이 아니라 후보돈 선발 후부터 1산차 교미시까지의 관리부터 계속 영향을 받는다. 등지방축정기로 포유기간중에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송은 (5×2)개월이 지난후 본



복당 포유개시두수는 (5×2) 두를
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포유자돈 체중은 평균 $(5+1)$ kg이 넘을 때
이유시키는 것이 좋다. 이 정도의 체중이 되어야 이유후
사료섭취량도 용이하고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 진다.



것이 좋다.

이유시 위축돈은 5%가 넘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축돈과 설자증세, 호흡기 증세를 구분하여 치료하고 증세별 두수와 날짜를 기록하여 남겨두면 좋다.

이유자돈은 5개 돈방으로 나누어 준다. 우선 우과 ♂을 구분하고 성별로 체중에 따라 크고 작은 방으로 나눈다. 각 방에서 위축돈과 환돈만 따로 한 돈방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면 체중 차이에 의한 돼지간의 문제가 적어진다. 그러나 양돈장의 규모가 작으면 실시하기가 어렵다.

약품도 크게 5종류로 나눈다. 소독제, 예방주사제, 항생제, 영양제, 기타(치료제, 소모품 등)로 나누어 매월 금액기준으로 두당 월간 사용액을 기록해 둔다. 이 자료가 모이면 계절별 특성이 파악되고 계획을 세우기 쉽다.

우당 (5×4) 두의 비육돈을 1년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육돈두수/우/연 = (우의 연간회전율) \times (복당산자수) \times (포유육성율) \times (비육돈 출하율) \times $= 2.2\text{회} \times 10\text{두} \times 95\% \times 98\% \approx 20.5\text{두}/\text{우}/\text{연}$

이상과 같이 사장님의 양돈 성적은 어떤가 비교해 보십시오.*

격적으로 교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 교미를 자주시키면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또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야 수태율과 산자수가 높아지게 된다. 5개월 혹은 검정이 끝나면 능력을 파악한 후 개체심사를 거쳐 선발을 한다. 그후에는 사료량을 줄여서 체중이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고 충분한 운동을 시키고 사람을 따르도록 관리방법을 바꾸고, 2차 교미시키는 우으로 교미훈련을 시켜야 한다. 특히 처음의 몇번 교미는 ♂의 교미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서 시킨다.

♂의 교미횟수는 (5×2) 회는 한 달에 시키도록 노력한다. 즉,

♂ 한마리가 월간 다섯마리 우을 담당하도록 한다.

복당 포유개시두수는 (5×2) 두를 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유개시두수, 체중미달 도태두수, 사산두수, 기형, 흑자, 미이라 등을 포함한 총산자수는 월평균 11.5두가 넘도록 한다.

포유자돈 체중은 평균 $(5+1)$ kg이 넘을 때 이유시키는 것이 좋다. 이 정도의 체중이 되어야 이유후 사료섭취도 용이하고,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포유중 사고율은 5% 이내라야 한다. 압사가 2% 넘으면 분만틀의 구조를 재검토한다. 포유기간중 고르게 폐사가 나타나면 사양관리방법 자체를 바꾸는